

보도 시점 2026.2.26. 11:00 배포 2026.2.26. 09:00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 부위원장, 과기부총리, 문체부 장관, “저작물의 균형 있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촉진”을 위해 맞손 잡다

- ①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②독자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 등 형사 면책 방안 검토 ③회색 영역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 ④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핵심 과제 추진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2월 26일(목) 오전,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2월 25일) '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 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이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다음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1.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저작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지와 인공지능 기업들의 정당한 이용 지원 목적으로 문체부가 발간하는 '공정이용 안내서'가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 및 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파운데이션 모델) 등 안내서에 포함된 다양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발전 속도와 기술 변화를 반영한다.

2.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파운데이션 모델)(이하 ‘독파모’) 등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현재 국내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들이 국가대표 인공지능 사업(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모델 개발을 위해 다양한 저작물의 학습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발생 시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하는 현행법 체계는 과도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대표 인공지능 기업의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간다.

3. 회색 영역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 등

음악·도서·방송 등 거래 시장이 있는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 등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인공지능 학습 거부권 행사(옵트아웃(Opt-out))를 지원하며, 거부 표시가 없는 때에만 선사용·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는 등 “창작자 권리 보호”와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저작권법 개정 포함)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

* 국무회의 보고(2.10), 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 제2차 전체 회의 심의의결(2.25)

4.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확대

공공 분야가 저작권을 소유한(전체 또는 일부)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학습 목적의 활용을 위한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고품질 저작물 데이터 공급을 뒷받침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금은 인공지능에 국가의 명운이 걸린 황금시간(골든타임)”이라며, “인공지능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콘텐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저작권 업계와 인공지능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은 “치열한 국제 인공지능 경쟁 속에서 속도전은 필수 불가결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	책임자	팀장	유경태 (02-2224-4131)
		담당자	사무관	이상범 (02-2224-4133)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미디어산업실 저작권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영진 (044-203-2471)
		담당자	사무관	이지현 (044-203-2409)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실 인공지능 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장	이소라 (044-202-6580)
		담당자	사무관	위재승 (044-202-6581)

붙임. 저작물의 균형 있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촉진(정보 그림<인포그래픽>)



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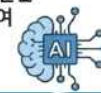
AI전략위 부위원장 - 과기부총리 - 문체부장관 네가지 핵심 과제 추진 ('26.2.26.)

1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문체부·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26.2.26.)

- 홍보·확산 지원 및 AI 산업발전 속도와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지속 고도화



2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등에 대한 형사민책방안 검토



현재 저작물 활용 과정에서 법적 분쟁 시
민사+형사책임 우려

- 국가대표 AI 기업의 독파모 개발 과정에서 저작물 활용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3 회색영역 저작물 AI 활용 촉진 등



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원 저작권자 불명확한 저작물 활용 필요

- 거래시장에 있는 저작물은 거래활성화 지원
- 거래시장에 없는 저작물은 AI학습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선사용·후보상 원칙 적용

4 공공저작물 AI 활용 확대



공공분야가 저작권을 소유(전체 또는
일부)한 저작물 다수 존재

- 공공저작물에 대한 AI 학습 목적의 활용을 위한 개방 지속적 확대

참고 저작물의 균형있는 AI학습 활용 촉진(인포그래픽)